

亞洲基金會와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경향

최말순*

〈차 례〉

1. 서언
2. 냉전시기 이주기금회의 대만 활동
3. 이주기금회의 홍콩거점 문화사업과 대만작가의 참여
4. 反共, 自由, 現代 -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주류적 경향
5. 정리와 전망

【국문초록】

본문은 미국의 문화냉전이란 시각에서 亞洲基金會(아시아재단)의 대만문단에 대한 원조의 내용과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원조가 냉전시기 대만문학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이주기금회는 냉전시기 소련을 위시한 공산진영으로부터 신흥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원조활동을 진행한 미국의 여러 민간기구 중 하나로 1950년대부터 교육, 언론, 사회공동체건설, 농촌사업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대만사회를 지원했다. 그중 문학부문은 대부분 홍콩에서 출자하거나 지원하여 성립한 亞洲出版社, 友聯出版社, 人人出版社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들 출판사를 통해 대만작가들의 반공소설이 대량 출판되었고, 이들 출판사가 간행한 잡지 『亞洲畫報』, 『中國學生週報』 등의 소설 공모전에 많은 대만작가들이 참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홍콩의 우익문단과 반공문학의 공유현상이 나타났다.

이주기금회는 또한 대만작가들의 미국연수를 지원하고 관방기구인 美國新聞處와 더불어 195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의 주요 문학잡지인 『自由中國』, 『文學雜誌』, 『現代文學』 등의 창간에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만문단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문학의 소개와 전파로 대만문단의 경향을 반공문학의 민족의제에서 개성과 일상, 인간 내면의 심리와 감각을 다루는 개인의제로 바꾸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즉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반공, 자유주의, 모더니즘의 세 가지 주류적 경향의 중첩과 교체라는 변화에 이주기금회

* 대만 정치대학 대만문학연구소 부교수

와 관방기구인 미국신문처의 대공산정권 심리전과 문화원조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주제어] 아시아재단, 냉전시기, 대만문학, 미국문화원조

1. 서언

본문은 미국의 문화냉전이란 시각에서 亞洲基金會¹⁾와 대만문학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원조와 관련한 냉전시기 대만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편의 논문이 나와 있는데 주로 관방기구인 美國新聞處(USIS)의 문화선전활동과 이 기구에서 발간한 『今日世界』(1952~1959)등 잡지의 영향, 냉전시기 홍콩을 통한 문화원조 등이 언급되고 있다.²⁾ 필자 역시 한글로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을 통해 1950년대 반공문학에서 1960년대 모더니즘 문학으로 변화하는 대만문학의 추세를 미국의 문화원조와 관련시켜 살펴본 바 있다.³⁾ 그중 이주기금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로 홍콩문단과의 교류 부분에서 언급되는데 이는 이주기금회의 대만 내 문화선전과 지원 사업이 문학부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주기금회에 대한 연구는 대만사회의 발전과 연관시켜 지원내용과 규모를 분석한 전문가가 나와 있지만⁴⁾ 정치적 혹은 문화적 냉전을 불문하고 냉전사 연구의 시각에서 특별히 조명되지는 않았다. 또한 미국의 대아시아 냉전전략이나 중국 공산정

- 1) 아시아재단의 중국어 표현인데 대만에서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더불어 미국의 냉전문화 선전을 수행했던 기구나 기타 재단의 명칭도 대만에서 쓰이는 용어로 표기함을 밝혀둔다.
- 2) 林純秀, 『冷戰現代性的國族/性別政治: 『今日世界』分析』(世新大學社會發展研究所碩士論文, 2008); 王梅香, 『肅殺歲月的美麗/美力? 戰後美援文化與五、六〇年代反共文學、現代主義思潮發展之關係』(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5); 陳建忠, 『美新處(USIS)與台灣文學史重寫: 以美援文藝體制下的台港雜誌出版為考察中心』, 『國文學報』 52: 211~242; 王梅香, 『麥加錫與美新處在台灣的冷戰』, 『媒介現代: 冷戰中的台港文藝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台北: 里仁, 2016, 101~148쪽; 應鳳凰, 『1950年代香港美援機構與文學生產—以『今日世界』及亞洲出版社為例』, 一九五〇年代的香港文學與文化國際學術研討會, 香港: 嶺南大學, 2013.5.21~23.
- 3) 최말순, 『민족에서 개인으로—1950년대 냉전대만의 문학풍경』, 『中央史論』 제38집, 中央史學研究所, 2013.12, 339~365쪽; 『1950, 60년대 타이완문학의 경향과 미국원조문화와의 상관성』, 『동북아역사논총』 48호, 동북아역사재단, 2015.6, 53~88쪽.
- 4) 官有垣, 『半世紀耕耘—美國亞洲基金會與台灣社會發展』, 臺灣亞洲基金會, 2004.

권에 대한 대응전략이란 측면에서 미국의 군사, 외교, 경제, 교육과 문화전반에 대한 원조의 규모와 방식, 효과에 대한 연구, 그리고 미국의 몇몇 민간기금회의 중점사업과 원조방식, 관방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지만⁵⁾ 냉전의 문화전략이란 시각에서 이주기금회의 대만 내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없다.

본문은 대만문학과 이주기금회의 관련성을 고찰하기 전에 우선 이주기금회의 대만 지원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참고하고 1950년대부터 20년간 대만의 미디어에서 보도된 이주기금회 관련소식을 찾아 기금회가 대만에서 관여한 사업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진행하고, 두 번째로 이주기금회가 홍콩을 거점으로 설립한 출판사에서 펴낸 서적과 잡지의 성향, 및 이들과 대만작가들과의 교섭, 그리고 이들 잡지에서 실시한 문예공모전에 참여한 대만작가의 면모를 통해 이주기금회를 매개로 진행된 홍콩과 대만문단의 교류 상황을 고찰하며, 이 기초에서 1950년대부터 향후 20년간 냉전시기 대만문단의 추세와 문학경향을 이주기금회 관련 잡지와 관련시켜 해석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문단의 형성과 문학의 추세는 특정한 면모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원인과 계기로 인해 촉발되고 변화해 가는 것이므로 어느 한 조직과 기구의 역할이 결정적 역할을 했거나 특정 변화를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초보적인 이해 과정에서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있어 이주기금회의 문화선전활동을 특화하기보다는 美國新聞處(미신처로 약칭)가 진행한 문화사업을 포함하여 미국의 포괄적인 문화냉전이란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주기금회 관련 문화사업과 대만문학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살펴보되 필요할 경우 미신처가 추진한 문학, 문화사업도 연계시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전망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5) 貴志俊彦、土屋由香、林鴻亦編、李啟彰等譯, 『美國在亞洲的文化冷戰』(台北: 稻鄉出版社, 2012)

2. 냉전시기 아주기금회의 대만 활동

1949년 국공내전에 패배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해 오면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안 사이에는 대치국면이 형성되었다. 蔣介石(1887 - 1975)은 대만으로 이전해 온 중화민국 정부의 실질적 통치구역인 臺灣, 澎湖, 金門, 馬祖와 東沙, 南沙群島에 계엄을 실시하면서 강력한 반공정책을 시행했다. 이차대전 당시 중단되었던 중화민국에 대한 원조는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재개되었으며 이듬해 미국과 공동방위협정을, 이어 1954년 제1차 대만해협 위기⁶⁾를 계기로 중미공동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美國經濟合作總署(ECA), 美國國際發展總署(USAID)등 기구에 의한 개발원조가 대만에 제공되었고 월남전의 군용물자 조달을 거치면서 미국원조는 향후 대만의 현대화와 경제적 고도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정부는 자신을 자유중국(Free China)의 수호자로 규정하고 공산진영인 적색중국(Red China)에 대항하여 경제, 군사 와 외교상의 지원 뿐 아니라 각종 학술과 문화교류에 따르는 경비와 기회를 제공하여 미국 위주의 서방사상과 문화가 대만 사회와 지식계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 문화적 현상을 흔히 냉전 미국원조(美援/美元)문화라고 부르고 미국의 공산진영에 대한 문화냉전의 영향과 결과로써 고찰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화냉전에 대한 연구는 미소 양대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대립이나 혹은 국제관계를 위주로 하는 냉전관에서 벗어나 보다 복잡하고 다중적인 냉전의 면모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이유는 냉전이 직, 간접적으로 집단 혹은 개인의 생활과 심리층면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전쟁이었기 때문이고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문화적 원조가 일방적, 전면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상황과 복잡한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문화냉전은 미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친미여론을 배양하는 미국

6) 1954년 미국과 대만 간 방위조약 체결 논의가 본격화되자 중화인민공화국이 金門섬에 포격한 사건.

정부의 각 기관, 그리고 이들 기관과 협력하는 민간단체가 실시한 대외활동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들의 정보, 선전활동은 방송, 영화, 전문가 파견, 전단지 발송, 교육 프로그램, 전시회, 문인 간 교류,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활동뿐 아니라 반미 미디어에 침투하거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 대한 조언 및 이들에 대한 물질적 원조 제공과 유세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냉전초기 이런 활동을 맡은 주요 선전기관은 미국무원, 1953년 국무원에서 독립한 美國新聞總署(USIA)와 그 해의 지부인 미신처(USIS)⁷⁾, 그리고 비군사 대외원조를 실시한 美國國際發展總署(USAID) 등이었고 그밖에도 이차대전 당시의 戰時新聞局(OWI) 산하의 미국의 소리(VOA), 대표적인 민간기구인 록펠러 기금회(The Rockefeller Foundation), 풀브라이트 협회(Fulbright Association) 등도 적극적으로 대외선전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첩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 역시 자유아시아방송국(Radio Free Asia)을 이용하여 대외선전활동을 진행했다.

그중 포드 기금회, 록펠러 기금회, 이주기금회 등 민간기금회의 활동이 주목되는데 이들은 반공이란 동일 목표 아래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특히 공산진영으로부터 오는 신식민주의, 제국주의라는 비판과 피원조 지역 지식인의 반감을 고려하여 미국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부조직 민간기구(NGO)는 일찍이 1,2차 세계대전 때부터 국제원조활동에 참여해왔으며 미국정부와 민간사회의 공동된 인식에 의해 냉전시기 이후에도 소련을 위시한 공산진영으로부터 신흥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정부의 외교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다.⁸⁾

이주기금회 역시 이러한 목적 아래 운영된 민간기금회 중 하나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주기금회의 전신은 1951년 설립된 반공조직 자유아시아위원회

7) 미국문화공보원인 미신처(USIS)는 아시아 각 나라에 설립되었고 반공과 친미의 공동 기조 하에 나라별 조금씩 다른 선전활동 목표를 설정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아시아 自由華人基地와 피난소로 위치를 정하고 해외 華人에게 대만의 자유중국 정부가 반공의 상징이며 중화문화의 수호자임을 선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8) 주 4), 20~24쪽.

회(The Committee for Free Asia)로 이는 중앙정보국의 막후 조종 하에 유럽에서 대규모로 대공산권 문화선전계획을 진행했던 문화자유연맹(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활동의 아시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조직의 목적과 수단은 각종 출판물, 예술전시와 국제회의 개최, 영화사업, 출판사, 방송국 등에 대한 지원과 찬조, 그리고 각종 문예의 장려와 공연, 전람의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문화를 선전하고 해당지역의 지식인을 끌어들이는데 있었다. 자유아시아위원회는 1954년 이주기금회로 이름을 바꾸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아시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비공산권 아시아 국가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 지역의 각 단체와 개인이 사회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집중적이며 전면적으로 협조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는 반공선전에 집중했던 원래 취지를 수정, 보완하고 보다 광범위한 대아시아 문화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지만⁹⁾ 민간기구의 성격과는 달리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1967년까지 중앙정보국으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았다. 이는 이차대전 종결 직후 미국의 아시아 냉전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인식과 관련되는데, 유럽에서는 소련과 코민테른에 대한 문화적 반격이 목표였다면, 아시아에서의 목표는 중국내 반중공 세력을 지원하고 북경정권을 억제하는 데 있었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아시아에서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자 미국은 홍콩을 거점으로 하여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억제와 침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방기구인 미신처의 심리전 대상으로 대만을 중시하였다. 이렇게 민간 명의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미국무원과 중앙정보국에 의해 설립, 운영된 이주기금회는 홍콩과 대만에 설립된 미신처의 여러 활동과 상호 협력,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문화선전에 주력했다.

이주기금회의 대만 분회는 1954년부터 1997년까지 운영되었고¹⁰⁾ 1997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현지의 자발적 조직으로 전환하여 台灣亞洲基金會(Asia Foundation in Taiwan, AFIT)의 이름으로 미국의 이주기금회와 결맹관계를

9) 일 년 전인 1953년 공산정권에 대한 심리전, 문화전 성격의 자유아시아 방송을 중지했다.

10) 1954년 미국이주기금회가 설립된 후 바로 중화민국 정부와 기술합작계약을 맺고 타이베이에 사무실을 설치했는데 당시 內政部에 亞洲協會로 등기하여 1997년 대만이주기금회로 전환되기까지 이주기금회와 이주협회의 두 가지 기구명이 공존했다.

맺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지난 43년간 이주기금회는 법치, 경제, 시민사회 발전, 양인과 국제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기간 동안 지원한 항목은 3000여개에 이르며 지원대상은 주로 학술연구기관, 정부부처, 민간 비영리기구, 각계의 엘리트들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1952년부터 1969년까지 대만에서 쓰인 경비는 매년 20만 달러이며, 한 해 평균 40명의 개인이 자금지원을 받아 해외로 파견되었다고 한다. 1954년에서 1982년까지 이주기금회의 대만 내 주요 자금지원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¹¹⁾와 같다.

원조영역	원조기간	원조금액/달러(당시 기준)
中央研究院	1954~1979	145,000
역사언어연구소, 경제학연구소, 근대사연구소, 민족연구소, 미국연구센터 등 中央研究院의 5개 연구소 설치와 후속 지원		
과학교육	1960~1970	60,000
과학훈련과 연수과정 지원, 과학잡지의 출판 협조		
사회학	1960~1963 1978~1981	62,000
東海大學과 台灣大學의 사회학과와 사회학 연구를 지원		
대학의 기업관리학과 신설과 발전 지원	1972~1981	151,000
남세제도개혁	1956~1973	91,000
재정부와 협조해 중화민국 남세제도의 현대화를 추진		
도시와 구역계획	1972~1976	38,000
행정원 경제설계위원회(CEPD) 도시주택처의 업무발전을 지원		
인력자원계획과 발전	1974~1978	16,105
행정원 경제설계위원회(CEPD) 도시주택처의 업무발전을 지원		
경제계획과 발전	1973~1977	62,800
행정원 경제설계위원회(CEPD)와 협조해 기획능력 개선과 인재확충 지원		
사법행정	1968~1982	80,000
법관의 연수와 훈련을 지원하고 사법행정 개선을 지원		
가정계획과 위생 여권 마련	1960~1981	85,550

11) 자료출처: Shel Severinghaus, "A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Asia Foundation, attached table" March 11, 1982, 및 기타 이주기금회 당안. 주 4)의 책, 43쪽에서 재인용.

중국가정계획협회, 대만성 가정계획연구소, 대만성 부녀위생연구소를 지원하여 가정계획을 추진하고 실험적인 공동체 의료위생계획을 추진하는데 자금 원조		
농업홍보와 추진	1960-1964 1975-1979	88,000
3개 대학의 농업홍보학과, 대학원 과정을 지원		
법률원조	1973-1982	94,000
민간 법률단체를 지원하여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에 빈민 법률서비스 센터를 열게 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정보와 전파	1958-1976	43,680
중앙도서관의 확충 지원, 政治大學 신문학과 교학과 연구 지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1964-1981	72,521
YMCA의 공동체 발전계획, 타이베이시 생명라인의 성립과 운영, 타이난 기독교 가정상담센터를 지원, 중국互助社운동협회 저축互助社의 운영을 지원		

이주기금회의 대만활동은 냉전초기에 속하는 1954년에서 1965년까지 주로 인력자원과 교육발전에 초점을 두고 현대사회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중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이 시기 가장 많은 액수의 자금원조는 1957년 國立故宮博物院에 2만 달러를 지원한 것인데, 타이중 霧峰에 문물전람관을 건립하여 25만 건의 국보를 공개 전시 하였다. 둘째, 1952년 亞洲自由委員會 시기 주타이베이 대표였던 Ward Smith가 『自由中國』(1949~1960) 잡지사 사장인 雷震(1897~1979)과 자금 지원협약을 맺고 1953년 1월부터 매월 잡지 1000권을 구매했으며 이듬해부터 1500권으로 늘렸고 이렇게 구매한 잡지를 동남아 화교들에게 증정함으로써 잡지의 안정적인 발행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화교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자유중국』은 자유와 민주를 취지로 발행된 종합잡지로 반정부 언론으로 지목되어¹²⁾ 1960년 정간되기까지 10년간 대만사회와 지식인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이 잡지의 문예란은 생활과 개인 등 반공 일색의 당시 문학기류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 주었다. 셋째, 이 기간 동안 고등교육, 인력 자원의 발전, 과학교육을 중시하여 中央研究院, 政治大學, 台灣大學, 師範大

12) 雷震은 재야인사 李萬居, 郭雨新, 高玉樹 등과 공동으로 蔣介石이 세 차례 총통에 연임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대 서명을 했고 1960년 2월 『自由中國』에 『장충통에게 드리는 마지막 충고』라는 사설을 실었으며 국민당을 비판하고 반대당인 중국민주당 창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로 인해 雷震은 반란죄로 체포되고 『自由中國』은 정간되었으며 이를 雷震事件이라 부른다.

學 등 고등교육기관의 자연과학, 사회학, 인문학의 발전과 연구에 자금지원이 집중되었다.¹³⁾

당시 대만의 유력 신문인 『聯合報』¹⁴⁾의 보도를 통해 대만 내 이주기금회의 활동내용과 지원방식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날짜	보도내용	관련내용
1954. 10.31	自由亞洲委員會가 조직과 장정을 수정하고 이사회를 확장하여 亞洲基金會로 명칭을 바꿈	목표는 「평화, 독립, 개인자유와 사회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아시아의 진보적 개인 혹은 단체에 미국의 개인적 지지를 제공함」
1955. 05.06	立法院教育委員會의 어제 회의에서 中央研究院長 朱家驊가 업무 보고, 중앙연구원에 近代史研究所를 증설하는 데 있어 亞洲基金會의 원조를 받기로 함.	亞洲基金會에서 경비지원
1956. 08.01	정부는 어제 훈장을 미국 亞洲基金會 駐華代表 饒大衛博士에게 수여	중미문화교류 촉진에 대한 공헌을 인정
1956. 09.13	董顯光大使의 미국내 방문 중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연, 주제는 「러시아의 새로운 면모와 共匪세력에 대한 인식」	亞洲基金會 이사장 魏爾伯의 접대를 받음
1956. 11.14	亞洲基金會太平洋區計劃主任 史徒華氏가 어제 駐華代表 史懷席博士와 함께 홍콩에서 입국	亞洲基金會의 대만에서의 활동에 대한 진전상황 시찰
1957. 05.27	國民黨駐美總支部 新委員취임	亞洲基金會主席 布魯姆와 亞洲基金會計劃處長 司徒華가 참석하여 화교교육문제에 대해 토론
1957. 06.02	中美兩國文化關係 촉진을 위한 양국 教育家 圓桌會議. 회의주제는 (1)미국학교에서 어떻게 중국문화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2)중국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법과 필요한 조치 (3)중국정부의 학생해외파견에 따른 장기정책과 중국 영도인재의 훈련문제 검토	亞洲基金會代表資格으로 대만에 체류했던 饒大衛博士도 참석
1957. 08.01	亞盟中華民國總會 會員大會개최. 주제는 (1)아시아 인민반공연맹 제1차 이사회개최장소와 시간 토론 (2)세계인민반공회의의 조기개최 방법 논의 (3)아시아연맹 중국총회 향후 일 년 간의 활동방침	美國亞洲基金會駐台代表 史維林이 致詞

13) 이 부분의 내용은 주 4)의 책을 정리한 것이다.

14) 중화민국 대만에서 발행된 중국어 신문으로 중국국민당 중앙위원이었던 王楊焄가 1951년 9월 16일 창간하였으며 『全民日報』, 『民族報』 및 『經濟時報』로 구성된 연합관이었으나 1953년 3개 신문이 합병하여 지금까지 『聯合報』로 발간되고 있다.

1958. 04.08	農復會에서 개최하는 農村青年交換訪問 프로그램으로 2명의 대표를 미국으로 파견	美國四健會基金會에서 주최하고 왕복경비는 亞洲基金會에서 부담
1958. 07.08	亞洲基金會 駐華代表 譚維理 대만 도착	신임대표로 3년 전에 台北美國新聞處에서 일했고 부임 전에는 亞洲基金會의 한국 대표 역임
1958. 07.11	이직하는 亞洲基金協會 駐台代表 史麟書博士가 회교교육의 성과 자축	1952년 自由亞洲協會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대만에서 공부하는 회교 학생수는 약100명, 教育部, 僑委會, 安全分署, 亞洲基金協會와 各級學校의 노력으로 6년만에 7000여명으로 증가
1958. 07.25	미국의 육상경기 감독을 초빙하여 대만선수의 기량을 양성	亞洲基金會에서 경비지원
1959. 05.06	國民大會代表 겸 國際關係研究會常務理事 鮑靜安이 5일 미국으로 출발	美國國務院과 美國亞洲基金會의 연합 초청을 받아 3개월의 미국방문
1959. 08.13	中南部의 水災에 대한 관심과 기부	亞洲基金會駐華代表 米勒가 관심을 표명하고 新台幣五千元를 기부
1959. 10.20	立法委員겸 劇作家 李曼瑰의 영국방문	亞洲基金會에서 방문기간의 경비를 부분 지원
1959. 11.19	교육부에서 科學世界방송 시작, 전문가 초청 강의	교육부國民教育司, 亞洲基金會, 中華科學協進會, 中國廣播公司 등의 찬조
1960. 02.12	台灣省 四健會 제7회 年會가 11일 순조롭게 폐막	亞洲基金會駐台代表 密勒博士가 참여하여 각종 교육모델의 설계와 전시에 대해 칭찬과 격려
1960. 03.12	農復會 주최로 2명의 農科大學生이 미국농촌 방문	亞洲基金會에서 경비를 부담
1960. 04.27	미국 과학자 克禮倫, 柯立芝이 대만을 방문하여 각 대학에서 강연	亞洲基金會의 지원으로 방문한 것이며 다음 일정은 한국방문
1961. 02.28	2명의 농촌 청년을 선발하여 미국으로 파견	中國農村復興聯合委員會와 亞洲基金會가 진행
1961. 03.05	필리핀과 농촌청년교환 프로그램 실시	亞洲基金會, 中國四健會協會와 農復會가 人員選拔과 旅費부담
1961. 07.29	부총통 미국방문,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요연설	亞洲基金會와 世界問題協會에서 초청
1961. 08.08	홍콩大學 文學會 教育文化考察團 29명 대만도착	僑委會와 亞洲基金會의 초청
1961. 12.24	四健會(4H클럽)青年 4명 선발하여 미국과 필리핀으로 파견	亞洲基金會, 中國四健協會와 農復會에서 진행
1962. 03.19	「亞洲學生」週刊에서 胡適의 별세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기념 사설을 게재	「亞洲學生」은 亞洲基金會에서 발행하는 잡지로 미국 내 외국학생이 가장 많이 보는 잡지

1962. 04.22	亞洲基金會에서 교육문화사업에 거금을 지원	中華科學協進會에서 출판하는 科學畫報에 新台幣二十萬元 기부; 國立中央圖書館에 新台幣十六萬四千二百元 기증; 기타 문화사업에도 기부
1962. 09.02	學術研究의 강화를 위해 中央研究院에 物理研究所 부활; 國立中央圖書館에서 『中華民國學術機構錄』修訂版 출판	美國亞洲基金會에서 지원
1962. 10.28	亞洲基金會主席 史密斯 단기 방문	부총통, 亞洲基金會 駐台代表 白安措 등과 회견
1963. 01.12	美國 「科學作家擢拔委員會」에서 국제적인 과학자 등기작업	대만의 경우 亞洲基金會中國分會에서 진행
1963. 01.13	四健會에서 4명의 농촌청년을 선발하여 미국과 필리핀에 파견	旅費는 亞洲基金會에서 부담
1963. 05.14	과학 동영상 교재 기증	亞洲基金會에서 증정
1964. 02.10	타이베이시 커뮤니티 발전계획 시행, 복리시설 건설, 유엔에서 협조 동의	亞洲基金會에 170여만원 지원 요청
1964. 05.02	中國輔導學會에 3년 기한으로 기부금 전달	첫해의 기부금은 新台幣三十萬元, 나머지 이년은 三十二萬元, 총액이 新台幣六十二萬元
1964. 05.15	亞洲基金會主席 F. H. 威廉斯博士 방문	현안 시찰과 격려
1964. 05.30	泰國佛教徒 우호방문	亞洲基金會의 찬조
1964. 11.04	記者團一行 샌프란시스코 방문	亞洲基金會代表 艾森柏 등이 접대
1966. 04.16	故宮博物館의 歷史文化 보물을 대만으로 옮겨 온 경과를 보도	보물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하는데 亞洲基金會에서 4만 달러 지원
1966. 05.21	과학교육의 중요성	그 일환으로 亞洲基金會의 지원을 받아 과학인재 초청
1967. 05.06	대만대학에 電機工程연구소 신설	포드기금회, 亞洲基金會와 초보적인 접촉, 경비지원 협의
1967. 06.14	바이올리니스트 郭美貞의 귀국 연주회	亞洲基金會에서 300달러 지원
1967. 07.15	아시아농업서비스센터 설립계획, 목적은 아시아지구 투자개발회사를 조직하여 아시아 경제발전 도모	亞洲基金會, 亞洲開發銀行, 록펠러기금회, 포드기금회에 지원요청
1967. 11.18	美國亞洲基金 新任駐華代表 韓佛瑞 도착	새로운 대표로 취임
1968. 02.07	清華大學 총장 미국방문	亞洲基金會의 초청

1968. 03.26	行政院賦稅改革委員會主任委員으로 劉大中 내정	經濟部長, 美國亞洲基金會 駐華代表 등과 租稅改革問題에 대해 의견교환
1968. 03.28	중학교, 초등학교의 科學展覽	입선작품은 亞洲基金會의 찬조를 받아 동남아 지역에서 전시
1969. 01.22	미국에서 열린 제2회 太平洋貿易 및 開發會議에서 韓國 서울대학교 교수 宋兆(譯音)가 한국의 경제기적에 대한 논문발표	각지의 亞洲基金會 대표들이 모여 경청
1969. 03.25	8명의 農村青年代表가 國際農村青年交換計劃에 선발되어 필리핀, 태국, 한국, 일본 방문	亞洲基金會에서 여비 부담
1969. 10.20	전면적으로 커뮤니티 건설 추진, 커뮤니티발전센터 건립	경비는 유엔과 亞洲基金會의 보조를 받음
1969. 11.08	亞洲基金主席 威廉斯 대만 방문	中華民國과 亞洲基金會의 합작에 대해 격려
1969. 12.10	사범대학 英語教學中心에서 초등학생 영어실험반 실시	亞洲基金會에서 찬조하여 실험반의 교학과정을 영화로 제작해 활용
1970. 01.20	科技發展의 새로운 방향 모색	亞洲基金會에서 관련 경비 지원
1974. 03.26	대만대학에 人口中心 설립	록펠러, 포드기금회, 亞洲基金會에 원조요청
1974. 09.06	제3회 中日「中國大陸問題」및 文化交流 세미나 개최	亞洲基金會駐日代表 史徒華가 참가
1975. 07.12	저명한 인력전문가 高希均教授 귀국, 교육부 교육 기획팀, 정치대학과 합작하여 고급인력 육성에 대한 연구 진행	亞洲基金會의 초청
1975. 09.02	國際職業婦女協會에서 婦女人力資料中心 건립	亞洲基金會에 보조 요청
1975. 09.30	기업관리인재의 육성 필요성 증가	亞洲基金會와 全國職業訓練基金會의 찬조
1975. 10.26	歐豪年, 朱慕蘭 화가부부의 미국전시회	亞洲基金會의 찬조
1975. 11.18	美洲中國圖書館 성립	亞洲基金會에서 서적기증
1976. 01.12	홍콩 中文大學 語文翻譯器(簡稱CULT)시스템 개발성공	亞洲基金會와 록펠러기금회에서 합작 투자하여 연구 지속
1976. 02.24	정치대학에서 신문업 세미나 개최	亞洲基金會駐華代表 邱越倫 참가
1976. 03.18	台灣大學「大學論壇社」에서 「自由中國婦女應具有的時代意識」 주제로 좌담회 개최	亞洲基金會 執行秘書 王世榕 참가
1976. 11.14	東吳대학 사회학과 社區조사활동	亞洲基金會가 경비지원
1977. 06.21	亞太地區作物收穫後之處理與儲藏 세미나 개최	亞太糧肥中心, 食品研究所, 香蕉研究所, 亞洲基金會 공동 주최

이를 정리해 보면 대만의 대학과 학술기구에 대한 지원, 세계 반공기구의 결속과 신설, 화교사회에 대한 지원과 교육업무, 4H클럽을 위시한 농촌청년 교환 프로그램, 과학교육과 산업연구에 대한 지원, 문화학술 교류지원, 유엔이 주도하는 도시 커뮤니티 발전계획의 지원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의 보도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아주기금회의 활동과 원조로 인해 학술적 측면에서의 미국경향, 친미인사의 배양, 화교교육을 통한 동남아 지역 친미 지도자 양성, 과학기술교육, 반공문학의 번역과 출판, 정계와 학술계를 포함한 미중간의 인원교류와 문화적 교감 등으로 대만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⁵⁾

3. 아주기금회의 홍콩거점 문화사업과 대만작가의 참여

앞서 본 대로 아주기금회의 대만 내 활동과 사업에서 교육과 언론, 예술 등 문화부문에 대한 지원 사항은 찾아 볼 수 있지만 문단과 문인에 대한 지원 등 대만문학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주기금회와 대만문학의 관련성에 관한 현재의 관찰은 홍콩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연구에서도 제기한 바 있듯이 홍콩은 거리상으로 중국과 가까워 정보의 확보에 유리할 뿐 아니라 南來文人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피난 온 난민 지식인들의 활용 가능성, 좌우사상의 완충지대, 동남아 화교에 대한 장악 등의 이유로 인해 냉전초기 10년간은 미국의 대아시아 문화냉전의 구심점이자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원조 아래 출판기구와 그에 연속된 간행물이 생겨나게 되었다.¹⁶⁾ 특히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소극적인 관망에서 적극적인 진공으로 바뀌면서 아주기금회는 매년 60만 달러의 자금을 출자하여 홍콩의 문화 사업을 지원

15) 이는 아주기금회를 키워드로 검색한 것이며 亞洲協會로 검색하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지원활동과 내용의 파악에는 별로 영향이 없기에 생략하였다. (<http://udndata.com/library>)

16) 오병수, 『아시아재단과 홍콩의 냉전(1952~1961) - 냉전시기 미국의 문화정책』, 『동북아논총』 48호, 2015.6, 7~51쪽.

하기 시작했다.

우선 출판사업으로 美聯社에서 일한 적이 있는 張國興(1916~2006)의 亞洲出版社를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아주출판사는 1930년대 민족주의문학을 제창하여 魯迅(1881~1936)의 비판을 받았던 黃震遐(1907~1974)가 편집장으로 있던 출판사였다. 1952년 9월 성립한 이 출판사의 간행물은 홍콩의 기타 잡지와는 달리 중화민국 기원을 사용하였고 대부분 반공작품과 공산당 문예를 비판하는 평론 서적을 주로 출판했다. 아주출판사는 강력한 미국의 원조를 배경으로 서적 간행, 번역, 코믹북, 아동과 청소년 총서 등 다양한 출판사업 이외에도 통신사, 화보사와 영화회사 등을 경영했는데 중국의 문예부 흥운동을 표방하면서 보험관세제도를 설립하고 높은 원고료를 지급하여¹⁷⁾ 난민 지식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객관적인 기준의 원고채택 등을 통해 문학 기풍을 진작시켰다. 이로 인해 아주출판사는 1950년대 홍콩문단의 중진이자 문화적 반공보루로 떠올랐다.¹⁸⁾

黃震霞가 밝힌 편집방침에 의하면 공산중국에서 피난 나온 실제 이야기를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참회록 형식으로 기록하거나, 『半下流社會』 같은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망명 지식인의 생활, 소설공모와 원고모집 등을 통한 홍콩과 대만의 문화교류 촉진, 해로운 사상을 제거하고 시대를 영도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사상의 건립 등이었고¹⁹⁾ 아주출판사에서 발간한 잡지 『亞洲畫報』(1953)의 3주년 경축호에 의하면 출판사의 성립과 운영은 반공에 기초하여 자유를 추구하고 대만과 홍콩 두 지역 간 문화소통의 통로, 나아가 자유세계 간 소통의 교량이 되는, 즉 이름처럼 아시아 자유세계 간의 소통을 목표를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의 사악함을 제거하고 지식인의 창작과 예술적 자유를 회복하는데 문예의 목표를 두었는데 이에 걸맞게 아주출판사에서 펴낸 출판품은 대부분 대만과 홍콩작가의 반공소설이고 그중에서도 대만작가의 반공작품이 더 많은 량을 차지했다. 이렇게 아주출판사는

17) 당시 일반적인 고료는 천자에 5원 홍콩달러였는데 아주출판사에서는 20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18) 鄭樹森, 「被遺忘的歷史·歷史的遺忘-5, 60年代的香港文學」, 『從諾貝爾到張愛玲』, 台北: 印刻出版社, 2007, 167쪽.

19) 譚貽善, 「香港出版事業亂糟糟-黃震霞、徐訏返港前的一席談」, 『聯合報』第6版, 1957.06.28.

홍콩뿐 아니라 해외문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만에도 아주출판사 지점이 설립되었고 1953년 창간한 『아주화보』는 여러 차례 단편소설을 공모하여 홍콩뿐 아니라 대만과 동남아 등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²⁰⁾ 한 가지 예로 1962년 대만작가 郭良蕙(1926~2013)의 장편소설 『心鎖』가 謝冰瑩(1906~2000), 蘇雪林(1897~1999)등에 의해 황색소설로 지목되어 검열당하고 中國文藝協會로부터 제적되자 『아주화보』는 124기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특집을 꾸며 찬성과 반대의견을 모두 실었고 이 소설은 이후 대만에서 출판되었다. 또한 1950년대 대만의 반공문학잡지의 편집인으로 잘 알려진 虞君質(1912~1975)의 『藝術論叢』도 이 출판사를 통해 발간되었고 대만의 반공작가인 郭嗣汾(1919~2014), 穆中南(1912~1992)등도 이곳에서 나온 『當代文藝作家論』에 소개되었다.

아주출판사에서 펴낸 대만작가의 소설로는 林適存(1914~1997)의 『駝鳥』, 趙滋蕃(1924~1986)의 『半下流社會』, 魏希文(1912~1989)의 『我永遠存在』, 思果(1918~2004)의 『藝術家肖像』, 謝冰瑩의 『聖潔的靈魂』, 張一帆의 『春到調景嶺』, 沙千夢의 『長巷』, 王平陵(1898~1964)의 『錦上添花』, 郭嗣汾의 『黎明的海戰』, 『威震長空』, 『風雪大渡河』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주출판사의 서적은 대만에서 매우 높은 인기를 얻었는데 『半下流社會』와 『聖潔的靈魂』은 中國青年寫作協會에서 조사한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로 뽑히기도 했고²¹⁾ 이 출판사의 간판작가인 徐訏(1908~1980)의 작품은 대만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했다. 그 외 1953년 성립한 영화회사인 亞洲影業公司도 대만작가의 반공소설인 『長巷』와 『半下流社會』를 영화로 각색하기도 했으며 아주출판사가 출판한 이백 여 종의 소설 중 대만문단에서 활동하던 반공작가가 대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²²⁾

또한 사진을 위주로 하고 中英대조본으로 발행한 『아주화보』는 좌익 쪽의

20) 아주출판사는 본사를 홍콩에 두고 대만지사에서 외부 외관 총대리를 맡아 대만은 물론 마카오, 베트남, 태국, 버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태평양군도, 일본, 미국, 캐나다, 쿠바, 파나마, 필리핀 등지로 판매되었다.

21)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光復後臺灣地區文壇大世紀要』, 台北:文訊, 1985.6, 79쪽.

22) 鄭樹森, 『香港新文學年表』, 『香港文學』第62期, 1990.2.5.

『良友畫報』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며 원동에서 가장 미관이 뛰어나고 판매량이 높은 잡지로 칭해졌으며 무엇보다 대만에서 영향력이 높았다. 우선 반공 소설 『半下流社會』를 쓴 작가 趙滋蕃이 아주출판사의 편집으로 초청되어 잡지 편집을 맡았고, 郭嗣汾 역시 그림과 문장을 함께 실은 이 잡지가 대만과 해외 독자들에게 인기가 높았음을 증언하고 있으며²³⁾ 鍾肇政(1925~), 鍾理和(1915~1960)등 대만의 저명한 본토작가들도 1950년대 『文友通訊』(1957~8) 시절 이 잡지에 투고하기도 했다는 데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실제로 鍾理和의 『菸樓』가 가작으로 당선되는²⁵⁾ 등 이 잡지가 실시한 문예공모에 참여한 대만인 숫자를 통해 이 잡지의 대만 내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보듯이 대만인 응모자 비율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년도	대만 참가자 비율	주요 대만 수상자
1955.05	160/355 45%	彭歌(姚朋), 楊品純(梅遜), 郭晉秀, 吳崇蘭, 郭良蕙, 嚴友梅
1956.05	428/592 72%	郭嗣汾, 尼洛(李明), 郭衣洞(柏楊), 童眞, 郭晉秀, 吳崇蘭, 王蠡靈
1957.05	414/480 86%	楊品純(梅遜), 司馬中原, 郭衣洞, 貢敏(應聚才)
1958.05	568/660 86%	郭良蕙, 鍾錚(鍾理和), 司馬中原(吳延玫), 朱西甯
1959.05	126/165 76%	彭歌(姚朋), 潘壘, 鍾錚(鍾理和), 桑品載
1960.05	공포하지 않음	邵儻, 松青(馬森慶)
1961.06	278/312 89%	王韻梅, 張曉風
1962.06	자료 없음	王韻梅, 朱韻成, 文心

『이주화보』의 문예창작은 소설이 가장 많았는데 투고자가 가장 많은 것 외에도 대만작가의 수상 비율도 가장 높아 매년 앞 순위는 거의 다 대만작가가 차지했다고 한다.²⁶⁾ 『이주화보』의 단편소설 공모는 1955년에서 1962년

23) 郭嗣汾, 『淺談香港文學』, 『文訊月刊』 20期, 1985.10, 25쪽.

24) 王梅香, 『肅殺歲月的美麗/美力?戰後美援文化與五、六〇年代反共文學、現代主義思潮發展之關係』, 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5, 53쪽.

25) 吳佳馨, 『1950年代台港現代文學系統關係之研究:以林以良, 夏濟安, 葉維廉為例』, 國立清華大學台灣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8, 162쪽.

26) 郭嗣汾, 『淺談香港文學』, 『文訊月刊』 20期, 1985.10, 26쪽.

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일반조와 학생조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앞 3등에 한해 해당 달의 잡지에 게재하고 10등까지는 따로 『亞洲短篇小說選』을 편집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이 공모전은 상금도 높고(27)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28)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군중작가와 여성작가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홍콩문단에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만 내의 문학상과 각 문학잡지에서도 활약했다. 학생조의 통계를 보면 대만대학, 정치대학, 사범대학 순이고 중, 고등학생도 참여했으며 그중 대만대학의 외국어학과 학생의 수상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대부분 1960년대 대만 모더니즘 문학을 이끈 『現代文學』(1960~1984) 작가군과 중첩된다. 王文興(1939~)은 대표적인 예이고 그밖에도 水晶(1935~), 馬森慶, 叢甦(1939~), 金恆杰(1934~2014)등도 이 소설공모전에 응모했다. 『이주화보』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 발행된 반공선전 잡지임을 감안하면 도서관이나 일반 기관도 구매하거나 증정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당시 『이주화보』의 이 같은 소설공모전은 대만과 홍콩의 문인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홍콩과 대만의 문학교류의 교량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로 友聯出版社를 들 수 있는데 아주기금회의 찬조를 받아 1951년 4월 창립되었다. 전신은 中國青年民主同盟(Y.C.D.C)으로 이 단체가 해체된 후 陳濯生, 徐東濱, 燕歸來 등의 책임 하에 余英時, 胡菊人 등이 편집을 맡았다. 우련출판사는 홍콩과 대만뿐 아니라 동남아로 범위를 넓혀 해외 華人들의 정치, 문화와 사회운동, 문예 등을 취급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예가 업무의 주요영역이었다. 이주출판사가 대량으로 문예저작을 출판한 것과는 달리 출판업 이외에도 友聯研究所를 설립하고 중국대륙의 정보 수집과 분석에 주력하여 丁淼의 『中國統戰戲劇』, 趙聰의 『中共的文藝工作』 등 저작을 발간했고, 홍콩에서 수신한 대륙 방송국의 자료와 정보를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무원에 제공했다. 우련출판사의 소개책자에 나오듯이 단기간에

27) 당시 교원의 월급이 대만돈 700원 정도였는데 1등이 5000원, 2등이 3750원, 3등이 2500원으로 상당히 높았다고 하겠다.

28) 보통 200명에서 400명이 지원하여 30명 정도 수상했다.

동남아 화교에 대해 선전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반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매우 분명했음을 알 수 있다. 우련출판사는 각종 서적의 출판뿐 아니라 그 선전의 범위와 대상을 아동, 청소년 지식인으로 나누어 각각 『兒童樂園』(1953~1995), 『中國學生周報』(1952~1974), 『大學生活』(1955~1959), 『祖國週刊』(1953~1964)을 발행했다.

그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낙원』은 1953년 1월 6일 창간한 반월간으로 간행목적은 어린이에게 정상적인 오락을, 부모에게는 자녀교양의 수단을, 교사에게는 과외보충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穆中南에 의하면 대만의正中書局에서 대리 판매한 『아동낙원』은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다 사보는 인기 있는 잡지였다고 한다.²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국학생주보』는 1952년 7월 25일 창간하여 1974년 7월 20일까지 28년간 1128기가 발행되었고 발행량도 3만분에 달해 영향력도 상당히 컸다. 문학, 교육소식, 중점보도, 생활사상, 독서연구, 과학지식, 영문연습, 학생문예, 시페이지, 사진촬영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창간호에 따르면 오락에서 예술, 학식에서 문화, 사상에서 생활을 망라하여 연구하고 창작의 대상으로 하여 청년학생의 계도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학생주보』의 문예란은 西西(1938~), 亦舒(1946~), 崑南(1935~), 鍾玲玲(1947~) 등 홍콩문단의 신예작가를 배양한 토양이 되었고 이 잡지에서 주관한 장학금 문예공모는 錢穆(1895~1990), 唐君毅(1909~1978) 등이 심사를 맡았는데 이 공모를 통해 대만작가 司馬中原(1933~), 段彩華(1933~2015), 瘴弦(1932~), 白先勇(1937~), 陳映眞(1937~2016) 등이 작품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중국학생주보』는 대만문단에서도 활동했던 홍콩작가 王敬羲(1933~2008)의 『提燈的人』(詩集), 燕歸來의 『梅韻』(散文集)과 趙聰의 『談寫作方法』 등 시리즈 총서를 기획하여 友聯書報에서 발행했다.

우련출판사의 또 다른 잡지 『대학생활』은 1955년 5월 창간하여 1959년 6월까지 발행되었는데 대학생이 편집을 맡은 종합잡지로 해외 대학생들의

29) 穆中南, 『香港文學印象』, 『文訊月刊』 20期, 1985.10, 22쪽.

필독서였다. 대학생의 과외 독서물로 지정되어 대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 위주로 편집되었고 인물과 학교의 소개 통신, 문예 등이 주를 이루는데 王平陵, 蘇雪林, 張秀亞(1919~2001), 郭良蕙 등 당시 대만문단의 대표적 작가들이 이 지면을 통해 문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만의 대학생들에게도 발표의 지면을 제공했는데 그중에는 王文興, 叢甦, 尉天聰(1935~), 朱西甯(1927~1998), 趙天儀(1935~)처럼 이후 대만문단을 이끈 작가도 다수 있었다.³⁰⁾ 앞서 본 『중국학생주보』와 『대학생활』의 편집위원들은 모두 이주기금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新亞書院, 崇基書院의 교수였는데 이를 통해 이들의 사상이 이 두 잡지의 풍격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우련출판사에서 펴낸 또 다른 종합잡지인 『조국주간』은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953년 1월에 창간하여 1964년 4월 『조국월간』으로 바뀌었고 1972년 12월 다시 『中華月報』로 개명했다. 주간시기에는 중공의 실황을 보도, 분석하는 것이 기본내용이었고 반공입장을 견지하고 대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시사와 비평적인 기사도 게재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당 정부로부터 10여기가 검열당하기도 했다. 穆中南의 기억에 따르면 이 잡지의 내용은 크게 문예창작, 특약통신, 시사평론, 학술논문, 중공연구 등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문예작품의 작가는 대부분 대만작가였다고 한다. 『조국주간』 역시 문예공모를 실시했는데 鍾虹, 童眞(1928~), 彭歌(1926~), 潘壘(1927~), 歸人(1928~2012) 등 대만작가가 주로 투고했다.³¹⁾

이들 우련출판사에서 발행한 잡지는 각각의 대상이 다르고 내용에도 차이가 있지만 기존작가와 신예를 막론하고 대만작가들이 대량 참여했으며 홍콩과 대만, 심지어 동남아 화교사회를 하나의 연락망으로 구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고 의심할 여지없이 반공을 기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홍콩문학연구자인 鄭樹森을 포함해 당시 지식인들이 우련출판사의 미국 영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진술로 보아 미국의 냉전 문화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예부문에서 이주기금회 같은 민간 기구를 통해 미국정부가 직접

30) 秦賢次, 『香港文學期刊滄桑錄』, 『文訊月刊』 20期, 1985.10, 61~2쪽.

31) 穆中南, 주 29)의 문장, 22쪽.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선전활동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人人出版社를 들 수 있는데³²⁾ 이곳에서 발행한 반월간 『人人文學』은 1952년 5월부터 시작해 1954년 전후까지 3년 남짓 지속된 청소년 대상의 순문예잡지이다. 잡지의 내용은 소설, 산문과 번역 등이 있고 따로 서양 문학과 서양예술을 소개하는 ‘독서와 창작’, 대만과 홍콩 학생들의 문학창작을 싣는 ‘학생문단’ 두 개의 항목이 있었는데 1950년대초 문학과 예술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주요통로로 기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참여한 학생인 崑南, 西西 등은 이후 홍콩과 대만문단의 주요한 작가로 성장했다. 작가군을 보면 대륙에서 피난 온 우익작가 위주인데 그중 대만에서도 활동한 林以亮(1919~1996)은 대만작가들과 깊은 교유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편집 방침에 있어서 『인인문학』은 특히 중국문예부흥의 길을 개척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36기에 그쳐 다른 잡지에 비해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못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면을 통해 작가의 양성과 서양문학과 작가작품에 대한 소개를 통해 서구문학과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한 중요한 잡지라고 하겠다.

이상 아주기금회의 원조를 받은 출판사와 각종 잡지의 성향을 일별하고 이들 출판사에서 펴낸 대만작가의 소설과 각 잡지의 소설공모전에 참여한 대만작가의 명단을 살펴보았다. 언뜻 보아도 반공작가부터 자유주의, 모더니즘 문학 경향 등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주류 경향과 상당히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것으로 파악된다.

4. 反共, 自由, 現代 -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주류적 경향

일반적으로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주류적 경향을 반공문학, 자유주의문학, 모더니즘문학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물론 이 세 가지 경향에 수렴되지 않는

32) 盧瑋鑾、鄭樹森、黃繼特, 『5,60年代香港文學現代三人談 - 導讀 『香港新文學年表(1949~1969)』』, 『中外文學』 28卷10期, 2000.03, 21쪽.

여성문학, 순문학, 대만본토문학 등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각자의 문예지와 출판사, 인적 관계망으로 형성되어 특정 기간 지속된 진영과 문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세 문단은 냉전시기 시간의 차이를 두고 점차적으로 형성되었는데,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제기되어 있지만 반공문학의 경우 직간접적인 정부의 개입과 지원으로 형성된 소위 반공문예체제가 토양이 되었고, 개인적인 창작의 자유와 새로운 문예의 추구를 목표로 내세운 자유주의와 모더니즘문학 진영도 반공진영보다 강하지는 못하지만 공동된 생각을 가진 인사들을 결집시킬 목적, 인적 토대와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우선 반공문예체제는 中華文藝獎金委員會와 中國文藝協會, 青年文學寫作協會 등 문예조직과 『文藝創作』(1950~1956)같은 특정 문예지의 발간, 국가 정책으로서 추진한 반공문예의 창작과 전파에 협조한 출판사와 많은 문학잡지들이 정부에서 시달하는 문예이론과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다.³³⁾ 국민당 정부에 의한 반공문예체제의 강력한 작동으로 1950년대 전반기 대만문학을 규범하고 제한한 틀은 反共抗俄, 戰鬪文藝, 軍中文藝등 중국의 공산정권에 대항하는 반공이념이었고 절대다수의 작가가 정부주도의 반민간 조직인 중국문예협회에 소속되어 신문과 잡지를 통해 반공내용의 문학을 생산하였다. 앞서 본 홍콩을 거점으로 한 이주기금회의 지원을 받는 출판사에 문학작품을 발간했거나 그들 출판사에서 발행한 잡지에 작품을 기고하고 응모에 참여한 기존 대만문인이 거의 전부 반공문예체제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통해 대만의 반공작가들이 이주기금회의 문화적 지원을 받아 대만뿐 아니라 홍콩, 동남아 화교지역으로 무대를 넓혀 갔음을 알 수 있다. 이주출판사나 우련출판사가 지향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반공이념의 확산이란 목적을 생각할 때 대만의 반공문예체제를 통해 준비된 작가들이 이들 출판사가 제공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라고 하겠다.

33) 반공문예체제에 대해서는 최말순, 「민족에서 개인으로 - 1950년대 냉전대만의 문학풍경」, 『中央史論』 제38집, 中央史學研究所, 2013.12, 339~365쪽 참고.

이처럼 1950년대 대만과 홍콩문단은 이주기금회 같은 미국원조에 기초하여 반공 기초에서 같은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지역의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고 작가, 평론가 등 문단의 구성도 달랐으므로 반공이란 기초는 같지만 정도의 차이는 존재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1953년 대만문단에서 反共抗俄 문예정책과 전투문예를 제기했을 때 홍콩의 작가들은 이를 비판하고 자유문학의 논조로 대응했다. 무산되기는 했지만 당시 대만의 잡지 『文壇』(1952~1986)의 책임자인 穆中南이 이에 관한 토론을 준비한 바 있다. 말하지만 대만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반공문학이 추진되었던 데 비해 홍콩은 좌우문학 진영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상태였고 영국 식민지로서 제국주의 제한을 받고 있기도 했다. 때문에 대만의 주요 반공문학 작가들이 홍콩의 이주기금회가 주도하는 출판사에서 대거 소설을 출판하고 이주기금회가 지원하는 잡지의 소설 공모전에서 대량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대만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홍콩에서 반공선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미국의 입장에서 민간 기구를 이용하여 대만 반공문예체제가 배양한 문화적 역량을 활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홍콩의 우익문단과 대만문단은 반공문화선전에서 일체의 양면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겠다.

1950년대 미국은 아시아 공산당 정권의 힘과 영향의 증강을 약화 또는 저지하기 위해 경제, 문화, 심리 등 일체의 가능한 공개적 혹은 비밀행동을 취한다는 대아시아 냉전전략을 세우고 중공의 동아시아 중국어 문화권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자유중국의 소재지이자 서태평양 방어선의 중요거점인 대만의 국민당 정권을 지원했으며 동시에 홍콩을 중공정권을 관찰하는 정보거점으로 삼아 각종 문화 사업을 지원하여 반공문화선전에 활용했다. 이러한 조건과 환경에서 대만과 홍콩문단의 교류가 빈번할 수 있었으며 대만작가들이 이주기금회의 문화 사업을 홍콩진출의 경로로 이용할 수 있었고 나아가 대만의 반공문예론이 홍콩으로 전파되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반공문예체제의 작동으로 홍콩보다 상대적으로 획일적, 배타적, 통일적인 성격을 띤 대만의 반공문예이론과 문예운동이 홍콩문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주기금회를 매개로 한 두 지역의 반공문학 교류는 이렇게 대만작가들의 홍콩문단 대거 참여에서 잘 드러나지만 그뿐 아니라 중국전통문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각과 태도를 보여주고 데서도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문화냉전 전략은 중국어와 중국고전, 전통문화를 통해 홍콩의 중국작가들을 규합하고 나아가 한자 문화권인 아시아 기타지역과의 연관성도 고려한 측면이 있고, 대만에서는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의 무산계급문예가 소련에서 들어온 외래사상과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서 민족의 전통을 외면하고 부정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만에서의 국민당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³⁴⁾ 즉 목적에서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전통문화와 고전문학의 중시는 국민당의 문예정책과 미국의 문화전략의 공통된 면모라고 하겠다. 앞서 보았듯이 『아주화보』, 『중국어학생주간』, 『조국주간』, 『대학생활』 등 이주기금회의 지원을 받는 출판사들의 잡지가 대만에서 많이 읽힌 만큼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중국의 공산정권이 고전과 전통을 부정하고 심지어 파괴한다는 점을 반공선전에 활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중 우련출판사에서 발행한 잡지 『대학생활』을 보면 시경, 한부, 당시, 송사에서 청대 홍루몽에 이르기까지 중국문학경전의 소개와 해석, 중국문자의 소개, 역사인물, 문인소전, 중국고전의 문학기교 소개 등 중국문학, 문자와 역사적 인물을 게재함으로써 중국성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족문화와 전통은 국민당의 반공문예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1950년부터 작동된 반공문예체제는 냉전시기 내내 지속되었지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반공이념의 문학적 반영을 요구한 것은 흔히 1956년까지로 본다. 그 이유는 中華文藝獎金委員會의 폐지와 기관지 『문예창작』의 발행이 이 해에 중지되었으며 한편으로 대만문학사에서 반공문학으로부터의 본격적인 이탈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文學雜誌』(1956~1960)의 창간이 같은 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국민당 정부는 좀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반공문학을 추진하는데 그 이유는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양안 간의

34) 崔末順, 「反共文學的古典詮釋:五〇年代台灣文藝雜誌所反映的民族主義文藝論」, 『民國文學與文化研究』第三輯, 2016.12, 138~168쪽.

정세가 안정되고 미군의 주둔으로 즉각적인 전쟁의 위험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흔히 이차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한국과 대만의 경우 1950년대 중반까지 열전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특히 국공내전에서 패배하고 대만으로 철수해 온 국민당 정부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시 비상상태로 규정하고 反共復國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주도한 군중문예와 전투문예는 바로 비상시기의 문예 정책이었고 그만큼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반공내용의 문학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후 미군의 개입으로 양안 간 상호 침략의 길이 봉쇄되고 곧이어 1954년 미국과 상호방어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비록 정치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강조하고 계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강력한 통치를 지향하고 문화적으로도 군중문예운동(1951), 문화청결운동(1954), 전투문예(1955)의 추진 등 전시동원상태를 지속시키려고 시도했지만 반공 일색의 문학으로 제한하지는 않았고 반공 이데올로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학적 자유를 허가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대두한 자유주의 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 문학경향에 대해서는 반공문학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부의 창작 제한에 항거하는 문학적 태도라는 평가가 있지만³⁵⁾ 작가의 면모로 보나 문학적 내용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항거하거나 비판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유주의 문학은 『自由中國』의 문예란이나 혹은 『文學雜誌』에 실린 문학을 일컫는데 소설과 산문을 막론하고 일상적 소재나 개인적인 감회, 여행담 등이 많았고, 『現代詩』(1953~1962), 『藍星』(1954~), 『創世紀』(1954~) 등의 신시와 『現代文學』을 중심으로 전개된 모더니즘 소설은 개인 내면의 감각과 심리적 상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胡適(1891~1962)을 위시해 『자유중국』의 주요작가 吳魯芹(1918~1983), 陳之藩(1925~2012), 張秀亞, 聶華苓(1925~), 思果, 彭歌 등과 紀弦(1913~2013), 覃子豪(1912~1963), 余光中(1928~) 등 신시운동의 주역, 『문학잡지』의 夏濟安(1916~1965), 林以亮, 『현대문학』의

35) 陳芳明, 『台灣新文學史(上冊)』第十三章, 台北: 聯經出版社, 2011.

白先勇(1937~), 王文興 등은 반공과 대척된 지점에서 창작을 했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반공이념을 문학에 표현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 문학이 창작되고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반공문예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미국의 문화냉전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문화 원조를 받아 잡지를 창간했거나 미국문학을 비롯한 서구문학의 소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미신처에서 진행한 서적출판과 번역계획 등에 의한 미국문화의 전반적 유입 등은 민족의 사활을 내세운 반공내용에서 개인의 내면세계로 문학의 경향을 이동시키는 주요원인이 되었다.³⁶⁾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선 이주기금회의 원조 하에 발행되었고 대학생에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잡지 『대학생활』은 과학, 의학, 현대 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미국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현대와 진보로 선전하였다. 정치적인 자유주의와 철학, 예술상의 실증주의와 존재주의, 현대과학의 이성주의로 공산국가의 낙후성을 재단하면서 미국적인 교양과 지식을 선진적이고 현대적이며 공산주의와 대적할 수 있는 가치로 홍보하였다. 특히 문예에서 학술논문, 독후감과 서평, 명저번역, 보도통신, 문예 창작란을 통해 보들레르부터 릴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유럽의 모더니즘 문학과 동시에 영미 모더니즘 문학을 소개하고 전파했다.³⁷⁾ 인물의 내면세계와 심리의 변화, 언어와 기교의 운용, 시간성보다 공간성의 계기를 중시하는 서사방식 등은 도식적이고 공식화된 서사를 중시하던 반공문학과는 질적으로 다른 미적 감수성을 제공하였고 계엄 하 밀폐된 정치적 분위기에서 하나의 탈출구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서구 모더니즘문학의 사회현실에의 참여주장은 생략되고 외면되었으며 문학사조로서의 모더니즘의 정신과 이념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고 언어와 기교의 참신한 운용, 복잡한 인간 내면과의 대면이라는 지엽적 측면에 그치게 된다.³⁸⁾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가능하나 시와 산문, 소설을

36) 이러한 내용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가장 상세한 내용은 주 2)의 王梅香 석사는 문 참고.

37) 『대학생활』, 『문학잡지』, 『현대문학』 등 문학잡지에 소개된 서구문학에 대해서는 최말순, 「1950, 60년대 타이완문학의 경향과 미국원조문화와의 상관성」 참고.

막론하고 작가의 사상적 기반이 대체로 반공과 일치했으며 그럼으로 인해 자기검열의 기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했을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당 정부가 문학 예술에서 전시체제의 기준을 견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정세와 맞물려 미국의 공산정권에 대한 심리전이 반공에서 점차 미국문화의 선전으로 초점을 전환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모더니즘예술의 급진성과 과격적인 정치주장을 배제한 개인의 창작자유, 인간의 이성적 사고, 일상성과 개성의 존중, 건강한 생활과 개척정신 같은 반공문학의 도식성과는 구별되는 문예를 소개하고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 문학이 보여주는 온화한 속성, 예를 들어 유머와 여유, 생활과 개인적 취미의 중시, 그리고 목전의 대만 사회현실과는 동떨어진 개인 내면과 심리에 집착하는 모더니즘 소설과 이성적이고 건강한 경향을 고수했던 신시 모더니즘이 이를 어느 정도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미국이 문화 원조를 통해 선전, 전파하고자 한 내용과 그것의 대만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미신처의 각종 문화 활동 뿐 아니라³⁹⁾ 소위 美援文藝體制⁴⁰⁾하 진행된 서적출판과 번역계획의 면면이다. 王梅香의 최근연구에 의하면 1950년대 대만과 홍콩은 아시아 문화냉전의 중국어 출판센터로서 주로 미국의 외교목표에 부합하는 반공, 민주의 선전과 서방서적의 번역과 출판이 이루어졌는데 선전효과 확인을 위해 인원을 파견해 독자의 생각과 독서경향 등을 조사, 평가하였다고 한다.⁴¹⁾ 이런 과정을 거쳐 관방기구인 미신처와 이주기금회 같은 민간 기구를 통해 서적번역과 잡지의 간행을 지원했는데, 서적의 번역과 출판은 주제선정과 신청방법 등에서 매우 세분화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지만 대체로 미국의 역사, 문학, 인물소전,

38) 游勝冠, 「前衛, 反共體制與西方現代主義適在地化」, 『媒介現代: 冷戰中的台港文藝 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台北: 里仁, 2016, 241~266쪽.

39) 대만 내 美新處의 활동범위와 이곳에서 발행한 『今日世界』의 미국문화전파에 대해서는 최말순, 주 37) 논문 참고.

40) 陳建忠, 주 2)의 논문에서 제기한 개념으로 국민당의 반공문예체제가 강압적으로 운영되었던 剛性體制인 데 비해 미국문화원조는 보다 탄력적으로 작가들의 문학관념과 문화상상에 미국 혹은 서방의 세계관과 미학관에 친화적인 성향을 가져 오게 한 軟性體制라는 것이다.

41) 王梅香, 「隱蔽權力: 美援文藝體制下的台港文學(1950~1962)」, 國立清華大學社會學研究所博士論文, 2015, 63쪽.

과학과 의학지식, 각종 영어사전, 독물과 영어학습교재, 英中대조본 등을 출판했고 미국인들이 즐겨보는 문고판 책자소설 등도 번역 유포되었다. 미신처에서 진행한 『美國文學選集叢書』의 내용을 보면 소설, 산문, 시, 비평을 포함하는 방대한 량이었는데 소설의 경우 너대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 1783~1859), 허먼 멜빌(Herman Melville, 1819~1891)과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 등 1900년 이전의 작품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만문학의 경향 추이와 관련이 깊은 비평부분을 보면 夏濟安, 梁實秋(1903~1987), 思果, 夏志清(1921~2013), 余光中, 吳魯芹 등이 엘리엇 문학론, 프로이트 심리학, 르네 워렌과 웰렉의 문학이론과 비평, 예이츠론, 헤밍웨이론 등을 번역했고 일부는 그들이 참여한 『문학잡지』와 『藍星』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 총서의 번역과 집행에 참여한 작가, 번역가, 편집인, 학자 등 전문가의 모집과 초빙은 미신처가 직접 관여하였고 책이 출판된 이후 이들 지식인의 명성을 이용해 대학과 학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대만대학을 비롯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이며 자유주의 작가로 분류되는 이들은 1960년대 대만 모더니즘문학의 전성기를 연 『현대문학』 동인들을 양성한 학자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만 자유주의 혹은 모더니즘 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미국 문화냉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작품을 포함한 미국관련 서적의 중국어 번역과 출판은 1955년 이후 미국작품의 소개에서 현지작가의 창작 고무와 이들 작품의 영어 번역과 출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주요한 계획 중의 하나가 타이베이 미신처에서 출판한 『Heritage Press』 시리즈이다. 이차대전 후의 대만현대문학 작품을 처음으로 계통성 있게 영문으로 번역 출판한 것인데 동남아 지역에 중국어 문학을 보급하는 목적 이외에도 중공의 문학작품 외국어 번역과 경쟁하기 위해 고전 위주의 중국문학번역보다 대만의 현대문학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동시에 자유중국 대만을 중국문화의 정통으로 인정하고 반공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대만작가들에게 창작의 자유를 부여

했으며 민주, 자유, 과학, 인성 등의 가치를 내세웠다. 이 계획에 의해 영문으로 번역된 대만 작가와 작품을 보면 陳若曦(1938~)의 「招弟的早晨」, 「礦工之妻」, 黃娟(1945~)의 「相親」, 林海音(1918~2001)의 「燭」, 潘人木(1919~2005)의 「寧爲玉碎」, 王文興의 「一個公務員的結婚」, 歐陽子(1939~)의 「牆」, 王禎和(1940~1990)의 「鬼·北風·人」, 張愛玲(1920~1995)의 「等」, 鍾肇政의 「腳的故事」, 및 余光中의 詩作과 吳魯芹의 산문 등이 있고, 이주기금회에서 펴낸 『이주화보』의 공모전에서 소설상을 수상한 彭歌의 「黑色的淚」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총서는 반공보다는 당대 대만의 생활과 풍속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두 경향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미신처는 미국원작 동화의 개사, 출판을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홍콩에서 중국사정을 그린 보도문학 『紅旗下的大學生活』을 기획 편찬하였고 공산정권 하 생활을 그린 張愛玲의 「秧歌」와 「赤地之戀」 등의 창작도 지원하였으며, 작가들의 공동저작으로 『小說報』를 발간하여 통속적인 반공서사를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이주기금회를 통해 대만작가 陳紀滢(1908~1997)의 반공소설인 『荻村傳』을 영어로 번역했으며 대만의 中華文藝獎金委員會나 中國文藝協會 등 반공문예체제와도 협력관계에 있었다. 이주기금회는 그밖에도 대만작가의 아이오와 대학교(The University of Iowa) 연수와 체류도 지원했는데 1950, 60년대에 한해 보면 余光中, 白先勇, 歐陽子, 王文興, 葉維廉, 聶華苓, 楊牧(1940~), 瘴弦(1932~), 陳映眞, 鄭愁予(1933~), 商禽(1930~2010) 등 대만문단을 이끈 유명작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주류경향인 반공, 자유, 현대의 점차적 추이는 국민당 정부의 문예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미국의 문화원조와 상당히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전시상태에서 평시상태로의 인식이 문학과 예술상의 개인적 자유를 일정정도 허용하는 국민당 정부의 반공문예체제의 변화였다면 미국의 문화선전 역시 반공 일변도보다 현지 지식인에 대한 미국문화와 문학의 전반적 이식과 전파가 주류적 경향이 되었다는 데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고

이런 조건에서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주류적 경향이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5. 정리와 전망

본문은 이주기금회를 중심으로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경향과 미국의 문화 원조 사이의 관련성을 논의를 해 보았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주기금회의 직접적 영향은 홍콩에서 출자하거나 지원하여 성립한 이주출판사, 우련출판사 등을 통해 대만작가들의 반공소설이 대량 출판되었고, 또한 이들 출판사가 간행한 잡지 『이주화보』나 『중국학생주보』 등의 소설 공모전에 많은 대만작가들이 참여하여 홍콩의 우익문단과 반공문학의 공유현상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출판사의 간행물인 『대학생활』, 『조국주간』, 『아동낙원』 등도 대만에서 판매되어 아동, 청소년, 대학생을 비롯한 여러 계층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과정에서 냉전초기 대만의 반공문예체제의 형성과 작동으로 반공문예 이론과 창작은 역으로 홍콩문단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문학부문의 원조에서 이주기금회는 또한 대만작가들의 미국연수를 지원하고 관방기구인 미신처와 더불어 195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의 주요 문학잡지인 『자유중국』, 『문학잡지』, 『현대문학』 등의 창간에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만문단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문학의 소개와 전파로 대만문단의 경향을 반공문학의 민족의제에서 개성과 일상, 인간내면의 심리와 감각을 다루는 개인의제로 바꾸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즉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반공, 자유주의, 모더니즘의 세 가지 주류적 경향의 중첩과 교체라는 변화에 이주기금회와 관방기구인 미신처의 대공산정권 심리전과 문화원조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냉전시기 대만문단의 형성과 작동원리, 문학경향의 추세변화는 1970년대 이후의 대만문학의 발전과 추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만문학 이해와 논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기도 한다. 해서 지금까지의 관찰을 통해 앞으로 더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제시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앞에서 보았듯이 냉전시기 홍콩문단과 대만문단의 교류 상황에 관한 것이다. 1949년 이후 두 지역의 문학교류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는 이주기금회의 문화사업 같은 미국의 문화냉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영향관계나 협력 상황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반공내용에서 모더니즘 경향으로 변화에 홍콩문단과의 교섭과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지역은 미국의 문화원조라는 동일 조건 외 대만의 강력한 반공문예체제와 홍콩의 식민체제라는 다른 환경에 처해 있었고 따라서 반공에서 현대로의 변화라는 동일한 문학경로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상호 문인 간의 교류나 작품의 평가와 관련된 문학논쟁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 냉전문화와의 관련성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이주기금회의 아시아 중국어권 활동은 홍콩과 대만 이외 동남아 화교에 대한 반공문화선전과 친미 지식인의 양성에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각 지역의 현안과 조건에 따라 진행된 구체적인 면모에 대해서도 상호 대조와 참고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민당 정부의 화교업무와 화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상세한 고찰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주기금회를 비롯해 민간 기금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찰에 의하면 민간 기구는 미국 관방이 원하지만 직접 개입하기에 부담이 따르는 활동을 대리하는 찬조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만 내에서 진행한 전반적인 활동과 문화 사업에 대해서 아직 문서를 확보하지 못해 당시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그 외 미신처의 문화선전 활동, 국민당의 반공 정책과 어느 정도의 협력관계를 가지는지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 이주기금회는 아시아 16개국에 지회를 설치하고 운영했으며 한국에서도 다른 민간기구와 비교할 때 문화 제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인 원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냉전 시기 한국문화의 축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⁴²⁾ 대만의 이주기금회 관련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기를 마친 주한국 대표가 대만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도 있고 대만과 한국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도 있으며 원조를 받는 단체나 개인의 교류도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만과 한국의 이주기금회의 원조영역이나 규모 등의 객관적 비교뿐 아니라 이러한 문화사업이 냉전시기 혹은 그 이후의 양국 사회와 문단에 미친 영향 등도 비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2)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제39집, 2015.11, 221~276쪽.

■ 참고문헌

-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光復後臺灣地區文壇大世紀要』, 台北: 文訊, 1985.
- 官有垣, 『半世紀耕耘－美國亞洲基金會與台灣社會發展』, 台北: 台灣亞洲基金會, 2004.
- 陳芳明, 『台灣新文學史』, 台北: 聯經出版社, 2011.
- 貴志俊彥、土屋由香、林鴻亦編、李啟彰等譯, 『美國在亞洲的文化冷戰』, 台北: 稻鄉出版社, 2012.
- 王梅香, 『麥加錫與美新處在台灣的 cultural 冷戰』, 『媒介現代: 冷戰中的台港文藝 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台北: 里仁, 2016, 101~148쪽.
- 游勝冠, 『前衛、反共體制與西方現代主義適在地化』, 『媒介現代: 冷戰中的台港文藝 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台北: 里仁, 2016, 241~266쪽.
- 陳建忠, 『美新處(USIS)與台灣文學史重寫: 以美援文藝體制下的台港雜誌出版為考察中心』, 『國文學報』 52: 211~242쪽.
- 鄭樹森, 『被遺忘的歷史·歷史的遺忘－5,60年代的香港文學』, 『從諾貝爾到張愛玲』, 台北: 印刻出版社, 2007.
- 盧瑋瑩、鄭樹森、黃繼特, 『5,60年代香港文學現代三人談－導讀『香港新文學年表(1949-1969)』』, 『中外文學』 28卷10期, 2000.03.
- 崔末順, 『反共文學的古典詮釋: 五〇年代台灣文藝雜誌所反映的民族主義文藝論』, 『民國文學與文化研究』 第三輯, 2016.12, 138~168쪽.
- 譚貽善, 『香港出版事業亂糟糟－黃震霞、徐訏返港前的一席談』, 『聯合報』 第6版, 1957.06.28.
- 鄭樹森, 『香港新文學年表』, 『香港文學』 第62期, 1990.2.5.
- 郭嗣汾, 『淺談香港文學』, 『文訊月刊』 20期, 1985.10.
- 穆中南, 『香港文學印象』, 『文訊月刊』 20期, 1985.10.
- 秦賢次, 『香港文學期刊滄桑錄』, 『文訊月刊』 20期, 1985.10.
- 應鳳凰, 『1950年代香港美援機構與文學生產－以『今日世界』及亞洲出版社為例』, 『一九五〇年代的香港文學與文化國際學術研討會』, 香港: 嶺南大學, 2013.5.21~23.
- 王梅香, 『肅殺歲月的美麗/美力? 戰後美援文化與五、六〇年代反共文學、現代主義思潮發展之關係』(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5).
- 王梅香, 『隱蔽權力: 美援文藝體制下的台港文學(1950~1962)』(清華大學社會學研究所博士論文, 2015).
- 林純秀, 『冷戰現代性的國族/性別政治: 『今日世界』分析』(世新大學社會發展研究所碩士論文, 2008).
- 吳佳馨, 『1950年代台港現代文學系統關係之研究: 以林以良、夏濟安、葉維廉為例』(國立清華大學台灣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8).
- 聯合報資料庫 <http://udndata.com/library/>
- 오병수, 『아시아재단과 홍콩의 냉전(1952~1961)－냉전시기 미국의 문화정책』, 『동북아논총』 48호, 2015. 6, 7~51쪽.
-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제39집, 2015.11, 221~276쪽.
- 최말순, 『1950, 60년대 타이완문학의 경향과 미국원조문화와의 상관성』, 『동북아역사논총』 48호, 동북아역사재단, 2015.6, 53~88쪽.

최말순, 「민족에서 개인으로 - 1950년대 냉전대만의 문학풍경」, 『中央史論』 제38집, 中央史學研究所, 2013.12, 339~365쪽.

The Asia Foundation and the Trend of Cold War Era Taiwanese Literature

Choi, Mal-So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ia Foundation and Taiwanese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cultural Cold War. The paper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the Asia Foundation, a Taiwanese support enterprise, is explored through its depiction in the media. Although a private organization, the foundation operated under the goal of anticommunism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US government, being actively involved in areas in which it was difficult for the US to directly intervene without drawing the criticisms of neocolonialism and imperialism in addition to inspiring antipathy among intellectuals of aid-recipient nations. According to twenty-years of reports from the United Daily News starting from 1950, the foundation focused on manpower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order to lay down the basic structure of modern Taiwanese society. This initiative took the form of support for Taiwanese universities and academic institutions, the establishment and solidification of worldwide anticommunist organizations, backing for the overseas community in education and business, exchange programs for rural youth including 4-H clubs, aid for science education and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for exchange in culture and academia, and a support enterprise, lead by the UN, for city and community development planning. These kinds of activities and aid measures had a broad

influence in Taiwanese society including a trend in favor of the US in academia, the cultivation of pro-US public figures, the fostering of pro-US leaders in Southeast Asia through overseas education, educ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anticommunist literature, and the exchange of individuals and culture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political and academic world.

The second section examines the exchange that took place between Hong Kong and the Taiwanese literary establishment through the Asia Foundation by investigating the foundation's aid in Hong Ko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iwanese authors and the character of magazines published by the Asia Press, the Union Press, and the Everyone Press such as *Asia Pictorial*, *College Life*, *Fatherland Weekly*, and *Literature for Everyone*, and the representation of Taiwanese authors in literary contests held by the abovementioned magazines. This research has uncovered deep links between anticommunist, naturalist, and modernist writers.

In the twenty years that followed 1950, the trends of Taiwanese literature and the literary establishment have typically been understood to be anticommunist literature, naturalist literature, and modernist literature. Under the absolute influence of the Asia Foundation, the rightest literary establishment of Hong Kong and the Taiwanese literary establishment both put forth writing premised upon anticommunism. From this basis and the fact that Taiwanese writers participated in the Hong Kong literary establishment, that both literary establishments valued China's traditions and culture as a cultural tactic in relation to communist China, that the introduction of US-style education and knowledge comprised a large portion of magazines related to the Asia Foundation, and that Taiwanese writers were actively involved in the translation and introduction of American literature demonstrates that the main trend of Cold War era Taiwanese literature was deeply related to changes

in Kuomintang literary policy in addition to the Asia Foundation and US cultural aid.

Key words : The Asia Foundation, Cold War Era, Taiwanese Literature, US cultural Cold War